

2008 문화계 결산 ① 광주비엔날레

올 한해 광주·전남지역 문화계의 핵심 이슈는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와 뮤지컬 '시카고', 블루버스터 전시회인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7월16일~11월23일) 등 대형 예술 행사의 성공이었다.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됐고, 대형뮤지컬 등은 지역의 전시·공연문화를 바꿔 놓았다. 또 지역의 젊은 문화인들은 중앙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문화 남도'의 맥을 이었다.



외국인 오쿠이 감독을 영입한 2008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큐레이터 클레어 탄콘스가 기획한 '볼' 퍼포먼스의 거리 행진 모습.

亞太 넘어 세계인 미술축제로 주변 관광상품 개발이 과제

광주비엔날레는 해외 미술계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뜻 깊은 한 해를 보냈다. 개막과 함께 데이비드 엘리아트 일본 모리미술관 관장, 크리스천 라템마이어 뉴욕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케이 소피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감독 등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미술계 인사 100여 명이 광주를 찾았다.

등 외형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던 것을 지양하고, 전시의 질을 높인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 또 외국인인 예술 총감독으로 선임하고 주제를 엮는 등 파격적인 시도도 해외 미술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빼어난 관광지를 앞세운 삼하이 등지와외의 경쟁을 위해서 비엔날레와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지를 개발해 외국인 관람객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 관람객은 지난 2006 광주비엔날레(41만6천591명)에 비해 감소한 36만여명(대인시장 3만명 포함)에 그쳤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유료 관람객만 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는 평가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매력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광주시가 대인시장의 빈 점포 20곳을 임대해 창작, 전시, 판매가 모두 가능한 작업실로 리모델링하는 '예술인공방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문화 명소가 되고 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외국인 관람객 수는 1만2천788명으로 전체 관람객(35만6천여명)의 3.6%이다. 이는 재단이 당초 계획했던 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외국인 관람객 비율 5%는 세계 최대의 전시 관련 국제기구인 세계전시연맹(UFI)이 국제행사로 인정해주는 기준이다.

관람객들의 평가도 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번 광주비엔날레 관람객 10명 중 8명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관람객 수를 늘리는

중요한 해의 인맥을 구축하고, 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비엔날레가 국제 미술계에 담판을 제시하는 중요한 미술 행사로 성장했다"면서 "외국인 관람객을 늘리기 위해 광주 인근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9월 광주문예회관에서 광주 시립교향악단과 그리그의 '피아노협주곡'을 협연했던 피아니스트 김정원

전반 위를 달리는 낭만과 열정

피아니스트 김정원 광주 공연 ... 23일 5·18문화센터

기교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광주에서의 첫 협연이었던 이날 공연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 김 씨의 스타파워를 입증했다.

김정원이 자신의 역량을 오롯이 발휘할 수 있는 독주회 무대를 통해 다시 광주 팬들을 만난다.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에 출연하는 등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 씨는 지난해 클래식 연주자로써 처음으로 12개 도시 순회 공연을 가졌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기에 김 씨는 올해 14개 도시로 무대를 확장하고 현재 대전·제주 등 9개 도시 공연을 마친 상태다.

이번 연주회의 레퍼토리는 차이코프스키, 쇼팽 등 유명 작곡가들의 곡으로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아노의 로맨틱함을 꽃피웠던 주옥같은 곡들로 채웠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흐-부조니의 '사콘느', 쇼팽의 '베틀레', 슈만의 '빈 사육제', 차이코프스키의 '세 개의 작품-아상곡, 나타 왈츠, 뎀카',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2번'이다. 앙코르

곡으로 어떤 곡을 들려줄 지도 공연 현장을 찾은 관객들이 만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빈 국립음대와 파리 고등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마친 후 체코 아나체 필하모니, 부다페스트국립필하모니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진 김 씨는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뮤지션들과 진행하는 '김정원과 친구들'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피아노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티켓 가격 5만 5천~2만 2천원. 문의 062-2658-3546.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박물관·미술관 내내에도 무료 관람

내내에도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온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무료관람 시범실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은 근대 박물관 개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가

최근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문화소비 기호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료관람 정책을 실시한 지난 5~11월간 관람객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증가한 613만명에 달한다. 관람객 설문조사에서 무료관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도 무료관람 연장 결정에 한몫했다.

/연합뉴스

화사한 파꽃의 세계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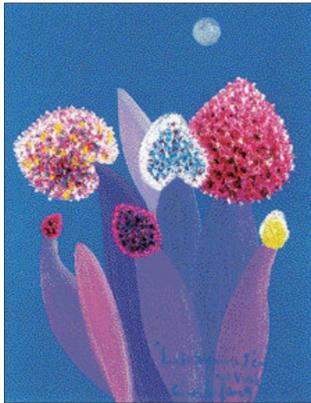
화가 최항씨 운암동 황계 갤러리 초대전

화사한 파꽃의 화가 최항씨가 오는 2009년 2월17일까지 광주시 북구 운암 3동 주민센터 내 황계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최씨는 무안-해남 등지에서 피는 양파꽃 군락을 연두, 노랑, 보라, 분홍, 파랑 등의 감각적인 빛깔로 표현한 파꽃 연작을 전시한다.

옉과 대를 넘겨 그려 생동감을 더했고, 아기자기하게 그려진 꽃들의 도드라진 질감을 살린 작품이다. 또 잔 붓질로 오묘묘하게 그려낸 꽃들은 입체감을 느끼게 해준다.

최씨는 홍익대 미술대학 출신으로 브라질 상파울로 예술원, 뉴욕 한국 현대미술 초대전을 가졌으며 형리 기오르 비엔날레 한국전, 한-



'파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일국제현대미술제 등에 출품했다. 문의 062-512-421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11월 목포문학관에서 열린 '제1회 김현 문학축전'.

제2회 김현 문학축전

20~26일 목포문학관서 심포지엄·공연 등 다채

목포출신 문학평론가 김현(1942~1990)선생을 기리는 제2회 '김현 문학축전'이 20~26일까지 목포문학관과 목포 오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전은 개막식을 비롯해 심포지엄, 문학 공연과 시낭송을 비롯해 문학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청소년과 시민들이 김현의 문학세계와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도록 '김현 문학 골든벨'(20일 오후 2시)과 김현 선생이 문학청년 시절에 감지한, 최하림 시인 등과 함께 누웠던 목포 오거리와 김현 문학비 등을 둘러보는 '문학 유적지 답사'(21일 오전 9시)가 열린다.

또 김현 문학축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김현 문학 심포지엄'(20일 오후 2시30분)에서는 목포출신 문학평론가 황현산 고려대 교수와 정과리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최희문 광주여대 교수, 홍기돈 문학평론가, 신정호 목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밖에 개막식 날인 20일 오후 7시부터는 목포시내 일대에서 남도지역 화가가 직접 그린 '김현 선생 초상화 증정식'과 함께 '문학예술 난장' 한마당이 펼쳐진다.

작가회의 목포지부 관계자는 "지적이고 심원한 문학 세계를 구축하고 한국 문학사의 외연을 확장시킨 김현 선생을 재조명 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학축전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61-270-840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Z.A.A. Fair and Z.A.A. Special. It features the text 'Z.A.A. Fair' and 'Z.A.A. Special' in large, stylized letters. Below the text, there are details about the event, including dates (2008.12.20-2009.01.28) and locations (G+J, Open Studio). The advertisement also mentions 'Zerobase, Action, Art.' and '다만시각에서 예술을 만나다.' (Discover art through a different perspective). At the bottom, it says 'open: 2008년 12월 20일 오후 2시' (Open: December 20, 2008, 2 PM).